

“마음도 빛나네” 스타들 기부 행렬 이어져

집중호우피해 구호 캠페인에 배우 박서준·유재석 1억원 기부 배우 유인나·가수 장윤정·홍현희-제이슨 부부 등도 기부 동참

배우 박서준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써 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박서준은 4일 희망브리지가 운영하는 2020 수해 피해 긴급구호 캠페인에 1억원을 쾌척했다.

박서준은 지난해에도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에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국민 MC’ 유재석도 1억원을 기부했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유재석은 2006년 수재의연금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포항 지진, 2019년 강

원도 산불 등 굵직한 재난·재해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왔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1억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관계자는 “새로운 재해구호 캠페인을 시작할 때마다 유재석 씨가 조용히 거액을 기부해왔다”며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피해를 당한 이 시기에 유 씨의 기부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씨가 희망브리지에 기부한 총금액은 이날 기준 7억1000만원이다.

유재석이 출연하고 있는 MBC ‘놀면 뭐하니?’ 제작진도 ‘말하는 대로’, ‘이별의 버



유재석 유인나 박서준

스정류장’ 음원 수익금 총 3422만3700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망브리지에 기부했다.

다른 스타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배우 유인나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이날 희망브리지에 5000만원을 기부했고, JTBC ‘팬텀

싱어’ 출연 팀 ‘라비던스’ 멤버 존 노도 성금 600만원을 보냈다. 방송인 유병재도 1000만원, 홍현희-제이슨 부부가 2000만원, 박지윤-아나운서가 2000만원, 가수 장윤정이 5000만원을 보내는 등 스타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상담소·쉼터’ 광주고 다목적 공간 ‘다락’ 호평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학부모 상담과 진로특강, 교직원 협업 등을 위해 마련한 다목적 공간이 호평을 받고 있다.

4일 광주고에 따르면 지난 3월 102㎡(교실 1.5개 정도) 규모로 장학관 1층에 조성한 다목적 공간인 ‘다락(多樂·여러 즐거움이 피어나는 곳)’이 이듬에 걸맞게 학교구성원과 이용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락은 지난 5개월 동안 학부모 상담소, 학생들의 임시 설명회와 진로특강 장소, 교직원들의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의 지혜를 모으는 장소로 이용돼 왔다.

입소문을 타고 광주지역 교사들의 교과연구회 회의 장소와 교육청의 홍보 영상 촬영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교직원들은 운동장과 정문을 바라볼 수 있는 학교 건물 중앙에 위치한 이 공간에 틈나는 대로 들러 동료들과 간단한 음료를 즐기고, 수다로 피로를 푸는 등 ‘활력 충전소’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영호 광주고 교장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심플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전자칠판, 무선마이크 시스템 등 교육·회의 장비를 두루 갖췄다”며 “다른 학교에서도 제2, 제3의 다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환경교육 비상선언 실천 선포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 실천 선포식(사진)을 갖고, ‘지구 환경지킴이 10+1운동’에 참여 키로했다.



환경교육 비상선언 실천 선포식을 기념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 실천 선포식(사진)을 갖고, ‘지구 환경지킴이 10+1운동’에 참여 키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구 환경지킴이 10+1운동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 운동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명시된 10가지 일회용품과 해양 쓰레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물티슈의 사용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지구 환경지킴이 10+1운동’을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생태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와 마

광주신세계 ‘사랑의 바자회’ 후원금 1000만원 전달

광주신세계(대표 이사 이동훈·사진)는 4일 광주신세계 대표이 사실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을 활용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후원금은 이날 한 달 동안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소외가정을 위한 쿨한 여름나기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광주신세계는 후원금을 모금회 측에 미리 전달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소외계층 250가정이 쓸 여름 이불 구매 비용으로 쓰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선대 글쓰기센터, 명저읽기 서평 쓰기 대회 시상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글쓰기센터가 최근 재학생들의 독서역량 강화와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2020학년도 명저읽기 서평 쓰기 대회’를 개최, 최우수상 3명 등 29명을 시상했다. <조선대 제공>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앙코르 20주년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결혼계약(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재) 55 UHD 숨터	00 출사표(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스푸키즈 3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치치명명 55 뽀뽀 친구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뮤직 50 KBS 재능방송센터(재)	20 영성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아생여정(재)			00 뉴스브리핑
[3]	10 가요무대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장치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도올학당 수다승철(재)	00 제보자들 스페셜(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30 골뎀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0매! 전라도	00 남도에 가요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남도스페셜(재)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행전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8]	00 남도스페셜(재) 20 아생여정 플러스(재) 30 기막힌 유산	30 제보자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출사표	30 심시일반	
[10]	00 일곱 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 50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40 라디오스타 1~2부	00 트롯신이 떴다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더 캡처	20 M드레마다 돈플러스 무비 <관>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45 히어로 씨클
07:15 출동! 슈퍼윈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8:00 생방송 퓌! 퓌! 하니
07:30 뽀뽀뽀 뽀뽀로	12:30 EBS 마스터	19:00 형사 가제트
07:45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9:30 최고대 후기심떡지
08:00 땡땡땡 유치원	13:50 EBS 초대석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코코몽2	14:40 미니특공대X	20:00 글로벌 아빠 삼만리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0 해와 해와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픽시	15:50 보로로와 노래해요	<안테스와 히말라야-잉카의 후예들>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30 한국기행
09:30 페파 피그	16:10 뽀뽀뽀 뽀로로(재)	<돌 오른 여름 3부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얼음골에서 행복이 피었습니다>
10:30 한국기행(재)	16:40 땡땡땡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극한직업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아웅명명 귀여워2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00 EBS 정오뉴스	17:30 로빈 후드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5일 (음 6월 16일 庚辰) ☎ 010-9790-8237

子 36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48년생 살 생각해 보면 집하는 것이 있으리라. 60년생 소용 없는 일이 내버려 두라. 72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바이다. 84년생 혼사다마요. 새옹지마에 비유 할만 하므로 흉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96년생 반 복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24, 79

丑 37년생 단단하게 정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49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점을 이룬다. 61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 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73년생 방치 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85년생 순리에 따르면 무탈하리라. 97년생 머지않아서 길조가 상승할 것이니 수용할 대비를 하라. 행운의 숫자 : 21, 70

寅 38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50년생 일관되게 진행 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62년생 활로를 열어 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74년생 바뀔 수 있다. 86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실감이 크겠다. 98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2, 55

卯 39년생 성과가 불만족스럽겠다. 51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국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된다. 63년생 예정 되어 왔던 문은 틀어 줄 것이니 조바심은 버려라. 75년생 상투적인 일상에서 탈바꿈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 87년생 억지사죄해보면 답이 나온다. 99년생 지연 된다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51

辰 40년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발버둥 치면서 어렵사 리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 나타나 있다. 64년생 지속적이 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76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들 것이다. 88년생 객 관적이지 못하면 무의미 하느니라. 00년생 굳이 따를 필요 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5, 53

巳 41년생 내용이 알찬 만큼 포장까지 깔끔하다면 금상첨화. 53년생 순식간에 벌어지니 큰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 65 년생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이 순조롭다. 77년 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 되리라. 89년생 합의하에 선택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01년생 사소한 부주의 가 구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7, 91

午 42년생 당치도 않으니 꿈도 꾸지 마라. 54년생 버려야만 새 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66년생 막연하다면 실수가 잦을 것 이니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78년생 함께 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90년생 효과 가 커진다. 02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음을 간과 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48, 73

未 31년생 해결할 역량이 충분하니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43년생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다. 55년 생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67년생 무 리하면서까지 억지로 행할 필요는 없느니라. 79년생 상대를 먼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 하리라. 91년생 측면에 따라 연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95

申 32년생 꼼짝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4년생 눈에 띄 는 하자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56년생 부드러운 운세다. 68년생 기본적인 관계와 입장을 중시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피해 갈 수 있다. 80년생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서 현상이 좌우될 것이니 과정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크다. 92년생 나타나는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43, 82

酉 33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면모이다. 45년생 무 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57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바라고 있 던 바이기도 하다. 69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가 행운과 연 결 되는 형국이다. 81년생 초기에는 열세하나 나중에는 성 황을 이룬다. 93년생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8, 58

戌 34년생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반드시 빈틈을 보이게 되어 있 다. 46년생 대국적으로 임해야 실속 있는 성취를 할 수 있 다. 58년생 상실감이 빠진다. 70년생 도움이 될 것이나. 82년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가 스스로 나타나다. 94년생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0, 78

亥 35년생 상호간에 이해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 47년생 가 급적 상대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 59년생 착실하 게 진행한다면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71년생 본격 적인 국면이다. 83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95년생 무의미하다면 자제하는 것이 마 당하다. 행운의 숫자 : 12, 86